

세계 속 포장재 산업체로 거듭 합병이후 제2의 도약 준비



김신연
한화폴리드리머(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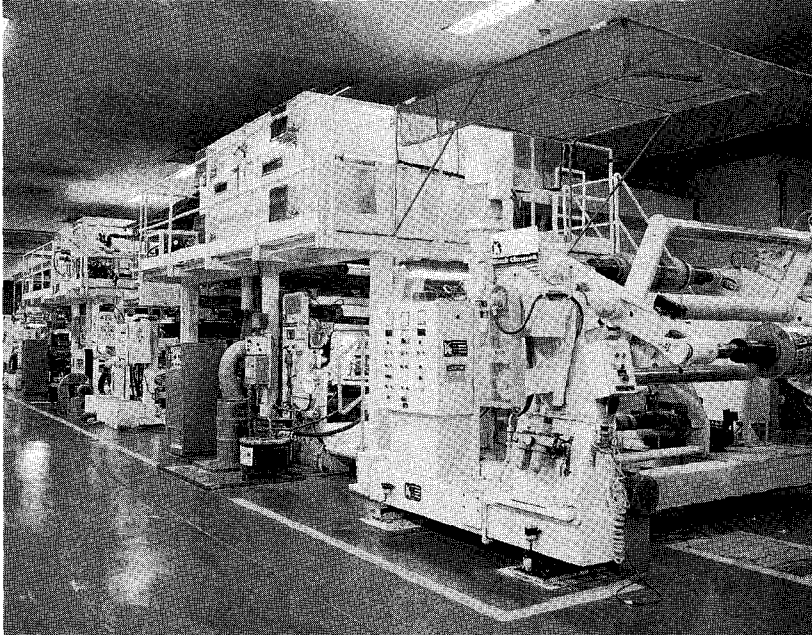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체제 하의 치열한 경쟁은 기업들에게 끊임 없는 변화와 시장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들은 M&A, 즉 인수합병을 선택하고 있다.

최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꾸준한 설비투자와 인재 육성을 통해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연포장 전문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구 삼진화학(주)은 한화포리머(주)와 지난 2003년 12월 합병을 이루며 한화폴리드리머(주)(대표이사 김신연)로 제2의 도약을 맞이하게 됐다.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는 물론 비식품 분야의 산업용 포장재를 개발 공급하고 미주, 동남아, 유럽지역 등 수출시



▲ 한화폴리드리머(주)가 생산하고 있는 연포장 제품



◀ 한화폴리드리머(주)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장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포장재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화폴리드리머(주)는 구 한화포리마(주)와 구 삼진화학(주)의 합병을 통하여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연포장 제품인 식품포장용 EVOH 고차단성 포장재, 고유분 포장재(참치 가공품 등) 및 냉동식품, ZIPPER BAG 포장재, 신선도 유지 포장, 커피·프림 포장재, 기타 용기(젤리, 푸딩, 용기면 등)

LID 및 식품관련 모든 포장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REFILL BAG용, 각종 라벨, 농수산물 외포장재, Retort Pouch 등을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asy Peel 포장, Easy Cut 포장, Anti-Fogging 포장, High Barrier 포장, 야채류 신선포장, Anti-Static 포장재 등의 기능성 포장제품과 환경친화적인 포장제품의 개발을 통해 포장기술을 선도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폴리드리머는 작업공간

내 맑은 공기를 보전하기 위해 취기 흡착시설은 물론 대기집진시설을 갖춘 대형소각로를 설치, 운용 중에 있으며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난방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품질고급화와 안전을 위해 한화폴리드리머는 자동인쇄결점검출장치, 자동 동판연마기 및 세척기, 전 공실의 크린룸화 진행(공실 출입문에 에어샤워 설치), 환경설비(대기 흡착탑) 등의 설비를 두고 있다.

현재 한화폴리드리머(주)는

Hanwha Polydreamer

김신연 대표이사 지휘아래 본사가 있는 서초 잠원동 사무소와 연포장·WP·시트를 생산하는 성환공장, 산업자재부문인 타포린을 생산하는 천안공장, Master Batch를 생산하는 창원공장에서 직원 및 연구실 인원 3백40여명이 고객만족 추구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신연 대표이사는 한화석

유화학 이사를 거쳐 한화포리마(주) 대표이사를 재직했으며 현재 한화폴리드림어(주)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다.

학력으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미국 Univ. of Central Oklahoma. MBA를 수료했다.

포장제품은 공정 다양화와 기능성 제품의 개발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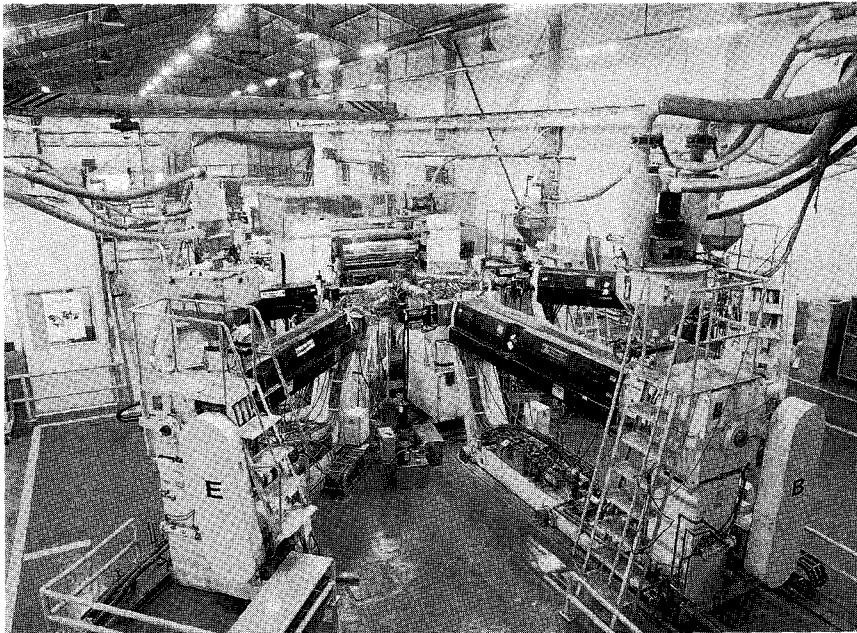
가장 큰 매력이라고 밝히는 김사장은 앞으로 경영합리화와 사업다각화의 추진 및 해외시장 확대로 국제화 기반 조성, 기술경쟁력 향상과 전략품목을 대폭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화폴리드림어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인 '밝은 세상 만들기'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밝은 세상 만들기'는 한화폴리드림어 전임직원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작은 정성을 모아 전달하는 활동으로 자발적인 절차에 의해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기부하고 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고자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한화폴리드림어 임직원들은 지난해 합병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 신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연구원



◀ 한화폴리드리머(주)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한화폴리드리머(주)의 합병은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고 목표의식을 강화시켰다.

한화폴리드리머(주)의 경영 이념은 능동적변화, 위기극복 경영, 경쟁력강화, 인간존중 경영의 4가지이다.

김신연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에게 “모든 문제점은 나 자신으로부터 생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조직 각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전직원들

이 혼연일체로 일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이 양사 합병 후 어려워졌던 회사의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기능성 포장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김 사장은 포장업체나 단체가 포장재의 규격표준화 적용을 권장토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속의 포장재 생산업체로 고객만족을 선도해 나가고

자 최고 품질주의를 지양하는 한화폴리드리머(주).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사회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화폴리드리머(주)의 제2의 도약은 관련업체들로 하여금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 최고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합병을 선택한 한화폴리드리머(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포장업체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ko]

이한얼 기자